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김상준기자 | 승인 2026.05.13 17:59 | 11면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안전영농 실천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지난 12일 합천지사 회의실에서 지역농업인 대표들이 참석한 '2026년 상반기 운영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이주현)는 지난 12일 합천지사 회의실에서 지역농업인 대표들이 참석한 '2026년 상반기 운영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공사 자문기구로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업 외부 환경 흐름에 대한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는 홍보영상 시청, 농지은행, 지역개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2026년 지사 주요 사업계획 및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단계별 급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농업인들을 대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공사와 농업인간의 소통과 신뢰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헌 합천지사장은“올 한해 농업인들이 물 걱정없이 영농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소통하여 현명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물관리로 안정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